

브랜드 가치 울산 15조 > 광주 4조

광주, 광역시 중 최하위 인천(11조5천억원) 대구(6조1천억원), 대전, 광주 순이었다. 연구원은 "광주는 국가 및 도시 브랜드 평가기관인 '안홀트-CMI' 분석에서도 저평가 된 데 이어 중국 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 평가에서도 295위에 머물렀다"며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광주시의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과제로 ▲다국적 기업 유치 ▲글로벌 대학육성 ▲국제행사 개최 ▲관광·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을 꼽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 복지담당 공무원 '1 당 500' 예산 집행·관리 부실

민생대책 업무 허점

장기불황 속에 정부가 각종 민생안정 대책을 쏟아내면서 광주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전달체계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일감을 처리하다 보니 각종 복지 업무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2일 광주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 및 의료보건서비스만 해도 20가지로 이들 서비스에 올해 책정된 예산만 6천953억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대부분 각 지자체별로 몇 안 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통해 집행된다.

각종 복지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는 274명이며 보조금 대상자 수는 14만5천명이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한 명당 529명의 보조금 대상자를 맡고 있는 셈

이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일손은 더욱 바빠졌다. 올 들어 지난달 28일 현재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지원'사업 신청건수는 2만457건, 이중 1만1천342건의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올해 긴급복지지원 신청건수도 971건(지원금 9억3천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3건(지원금 4억6천600만원)에 비해 252.2%(588건) 늘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각 지자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정부가 경쟁적으로 민생대책을 쏟아내고 선심성 대책까지 더해지면서 현장에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각종 복지관련 업무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극소수의 직원이 많은 업무를 맡다 보니 사후관리나 감독도 쉽지 않다.

최근 해남에서 발생한 10억 원대의 사회복지 급여 횡령사건과 진도 보건

소 진료비 유용사건 등은 부실한 사후관리가 키운 '예고된 비리'다. 각종 보조금이 실제 보조금 지원자에게 지급됐는지 여부와 지원대상자 소득, 재산 등의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각 동(洞) 주민센터에 배치된 주민생활지원 담당 역시 현행 일반 행정직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속에 정부가 각종 민생안정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도맡아 할 인력 보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업무의 경우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아닌 대체 인력이 업무를 맡아 할 경우 자칫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선 전문인력의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12일 남구 제2순환도로 분선IC 인근 도로변에 꽃잔디와 패랭이 꽃을 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서민 살리기' 6조원 푼다

실직 86만명 공공근로 일자리...월 83만원 지급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쿠폰 지급 3조1천억원을 포함한 6조원의 자금이 긴급 투입된다. <관련기사 4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110만명(50만가구)에 6개월 시한으로 월 평균 20만원이 지급된다. 최저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실직이나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86만명(40만가구)도 6개월간 월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

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했으며 4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50만가구(110만명)에는 5천385억원을 투입해 6개월 한시로 평균 20만원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가구당 인수를 고려해 12만~36만명이 지급된다. 실직자 40만가구(86만명)에는 2조6천억원을 지원해 공공근로를 통해 6개월간 월 83만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지급 형태는 현금 50%, 전통시장 상품

권 등 소비쿠폰이 50%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0.3~0.8% 포인트 인하하고,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도 한시 유예된다. /연광뉴스



알림 만화 한국사로 배우는 즐거운 漢字

3월 16일부터 매주 월요일 무료 배달



광주일보사가 '만화 한국사로 배우는 즐거운 漢字'를 발행합니다. '즐거운 漢字' 학습지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를 만화로 만들어 초·중학생이 꼭 알아야 할 漢字를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즐거운 漢字'는 역사를 흥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한국 고대사~근대사로 줄거리가 짜여져 있으며 필수한

자는 물론 고사성어, 논술까지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漢字'는 3월16일부터 매주 월요일, 광주일보와 함께 모든 독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즐거운 漢字'는 타블로이드판 을 컬러 16면이며 도서출판 '대능'이 제작한 수준높은 만화로 구성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光州日報社

고흥 로켓 발사 또 연기

한달 늦춰 7월말로

2분기(6월 말)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이던 한국 최초 위성 발사체 'KSLV-1'의 발사가 한 달 늦춰진 7월 말로 또 다시 연기됐다. <관련기사 3면>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발사체 시스템의 성능 시험 항목이 늘어나면서 KSLV-1 발사는 7월 말(±5일)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KSLV-1은 당초 2008년 말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8월 쓰촨성 지진의 여파로 발사체 시스템 핵심부품 조달이 늦어지면서 올해 2분기로 조정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발사대

시스템 성능 시험 등으로 인해 다시 1개월 가량 일정이 재조정 됐다. 교과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달 말까지 발사대 시스템 성능 시험을 완료하고,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발사체와 발사대 연계 인증시험을 할 계획이다. 또 6월 초 실제 우주로 쏘아올릴 '발사체 1단 비행모델'을 러시아에서 들여올 예정이다. 실제 비행모델을 러시아측에서 인수해 조립·점검 등을 거치면 7월 말에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KSLV-1의 발사일은 발사 1개월 전 최종 결정되며, 기상조건에 따라 날짜가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망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대겐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어 합니다. 국제약품은 오로지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의 보급
-비타민B, 칼슘·유기, 인산·지방질 (체중저감, 노년기)
-동맥 경화증 예방, 미연령
-당뇨, 고지혈증 예방, 체중저감, 주근깨 예방, 노화방지, 미연령
-안정수면, 스트레스 해소, 체중저감, 미연령, 노년기
-안정수면, 스트레스 해소, 체중저감, 미연령, 노년기

아연의 보급
*서울특별시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병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ookje.com/ko/kr